전 국민이 喪主

# 전남체전 등 각종 축제 취소·연기

## 세월호 침몰 애도 분위기

전남지역 지자체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국적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각종 축제를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2014년 전남체전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전남도는 20일 "오는 4월29일부터 5월2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무안군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던 2014 전남체전을 여객선(세월호) 침몰사고로 전국민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무안군, 관련 기관단체, 체육관계자와 협의해 전남체전을 지방선거 이후 6월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해남군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됐던 '제12회 삼산면민의 날 및 제1회 두륜산 유채축제'와 4월25일 문내면민의 날 행사, 29일 공연 예정이었던 (재)국립발레단의 해설 '돈키호테'를 각각 취소했다.

■전남 각종 행사 취소·연기

| 행사 | 예정 | 취소·연기일정 |
|---|---|---|
| 전남도 도민체전 | 29일~5월2일 | 6월10~13일 |
| 해남군 두륜산 유채축제 '돈키호테' 공연 | 25~26일 ·29일 | 취소 |
| 나주시 영산포 홍어축제 | 25~27일 | 취소 |
| 완도군 해조류박람회 | ~5월11일 | 오락 공연 취소 전시·관람 위주로 간소화 |

삼산면과 문내면 행사추진위원회에서는 각각 긴급회의를 열어 행사를 취소키로 하고 깊은 애도와 함께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영산강둔치체육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나주 영산포 홍어축제의 모든 행사도 전격 취소됐다.

김민주 축제추진위원장은 지난 18일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지난 16일 진도군에서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로 어린 학생들이 많이 희생된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취지에서 홍어축제의 모든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나주시도 희생자 애도와 유가족 위로 차원에서 19일 개최하는 세지와 다시 면민의 날 행사에서 초대가수 공연이나 노래자랑 등 오락성 무대행사는 제외하고, 기념식과 체육행사 위주로 간소화해 치르기로 했다.

개막 10일째를 맞은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도 예정된 공연 등 오락성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당분간 전시관 관람 위주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박람회 관람객은 이날 정오 현재 20만6994명으로, 20만명을 돌파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완도=정은조 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 나주 혁신도시 프리미엄 아웃렛 부지 실사

## 사이먼 프로퍼리 6월 중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프리미엄 아웃렛(쇼핑센터) 건립과 부지 실사가 이르면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신세계사이먼의 미국측 합작사인 사이먼 프로퍼리그룹의 스탠리 사슈아 인터내셔날 수석 부사장은 지난 14일 뉴욕 본사를 방문한 임성훈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3월21일 서명한 투자유치 의향서(LOI)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빠르면 6월중에 실무진들을 보내 아웃렛 건립 후보지에 대한 현지 실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임성훈시장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입지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프리미엄 아웃렛은 도시지역 내부가 아닌 외곽지역에 들어서는 대형 쇼핑타운이라서 혁신도시로 옮겨오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높은 구매력과 광주를 비롯한 인근 도시민들이 쇼핑에 나선다면 기업의 매출신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폭발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자신한다"며 속도감 있는 건립을 희망했다. 임 시장은 뉴욕 주재 전남도 통상사무소를 방문, 심춘식 소장에게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조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뒤 사이먼 프로퍼리 미국 아웃렛 1호점인 우드버리 아웃렛에 들러 데이빗 미스트레타 점장으로부터 운영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구상을 청취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조피볼락·참돔·굴·김·강도다리·홍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 확대

전남도는 20일 "양식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14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재해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 원리를 이용해 어가 스스로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고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중 기존 넙치, 전복에서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조피볼락, 참돔, 굴까지 본사업으로 확대돼 도내 전 어가에서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김'은 해남에 국한됐으나 해남·신안까지 확대해 지구별 수협이나 업종별 수협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굴은 보험 혜택 기간이 기존 시설물 설치일 31일째부터 5월 31일까지에서 현실에 맞게 4월 30일까지로 기간을 개정했다. 보험 가입 기간도 6~9월이었으나 실제 수하 시기와 맞지 않다는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 5~9월까지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강도다리, 다시마, 홍합 3개 품목이 보험 대상에 추가돼 총 대상 품목은 18개로 늘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밤고구마 순 심기** 해남군 황토밭에서 조기출하용 밤고구마(해남 1호) 순 심기 작업이 한창이다. 올해 고구마순 정식은 따뜻한 날씨 탓에 예년보다 10일 정도 빨라졌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 '귀한 꼬막' 강진서 대량으로 키운다

## 신기리 등 4개 해역 24ha에 1㎝ 크기 종패 120t 살포

강진군이 해양환경의 변화와 어장 노후화로 인한 패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패류 양식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군은 최근 도암면 용산리를 시작으로 신기리와 송학리 등 4개 해역 24ha에 1㎝ 크기의 꼬막 종패 120t을 살포하고 있다.

꼬막 종패 살포는 크레인을 이용해 선박에 하역한 후 마을 꼬막 면허지에 3~4차례에 걸쳐 되풀이하는 고된 작업이다.

작업에 참여한 도암면 용산리 김옥태(60) 청년회장은 "조류의 힘이 좋은 사리 때를 피하고 조류의 힘이 약하고 완만한 조금 때만 살포작업을 해야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꼬막 종패가 갯벌 양식장에 자리를 잘 잡고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뿌린 꼬막 종패는 2년후 4㎝ 정도까지 자란다. 살포 이후 이상기온과 고수온, 큰 태풍만 피하면 투자액의 5~ 6배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이 패류 양식사업에 발벗고 나선 이유는 꼬막의 주요서식지인 갯벌이 간척사업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싹쓸이 남획'으로 갯벌이 황폐화 된데다 수십 년간 채취만 하는 과정에서 자연 산란할 꼬막까지 채취하다 보니 자연 고갈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참꼬막 1㎏의 유통단가는 1만7000원, 새꼬막 1㎏은 9000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12년부터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중간 육성장 4개소와 모패장 5개소를 조성했고, 올해도 4개소에 1억2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패류 일번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강진군 도암면 용산리 주민들이 최근 꼬막 종패를 바다에 살포하고 있다.

**전남도 자전거 안전수칙**

① 안전모 반드시 착용
② 과속하지 말 것
③ 주행 중 휴대전화 금지
④ 야간엔 라이트 켤 것
⑤ 음주운전 절대 안 돼

전남도가 이용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자전거 통행 방법 및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20일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만큼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운행시 안전거리 확보와 함께 서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바른 통행 방법으로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보도가 아닌 차도로 가는 것이 원칙이며, 차도 이용시에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 운전을 위한 5대 수칙으로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으며 ▲주행중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 금지를 제시했다. 또 ▲야간에는 라이트를 반드시 켜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객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세심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